

부처님 말씀 충실히 담아 밝고 맑은 출판포교 25년

300호 발행 앞둔 혜원정사 사보 <혜원>



부산 혜원정사가 발행하는 월간 <혜원>이 오는 12월호로 통권 300호를 맞는다. 주지 원허 스님은 1990년 창간 이후 매달 빠짐없이 <혜원>지를 발행했다.

부산 혜원정사(주지 원허)가 발행하는 월간 사보지 <혜원>이 오는 12월호로 통권 300호를 맞는다. <혜원>은 주지 원허 스님과 혜원정사 신도들이 포교 활성화 및 도량의 소식을 전하고자 만들어졌다. 1990년 5월 2일 창간호 발행부터 시작해 제298호인 10월까지 한 번도 미발행이 된 적이 없을 만큼 혜원정사의 역사를 매월 기록하고 있다. 오는 12월은 혜원정사가 사보를 발행된 지 꼬박 25년이 되는 날이다.

1990년 5월 창간호 발행 사찰역사, 신도 신행담 실어 새 코너 '행복한 담소' 눈길

혜원지의 슬로건은 '넓은 세상 밝은 마음 맑은 불교'이다. 온 세상에 불국토를 펼치고 마음을 여여하게 하여 행복한 밝은 마음인 선정, 즉 맑은 불교를 완성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는 부처님의 법을 온 세상에 전하겠다는 혜원정사의 지향점이기도 하다. 처음으로 혜원지가 발행했던 1990년만해도 불교 서적을 구하는 것이 흔치 않았다. 그 당시 불자들은 부처님의 말씀과 큰 스님의 법문을 접하지 못해 목마름이 항상 있었고 주지 원허 스님은 이를 안타깝게 여겨 조금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알리고자 혜원지를 발행했다. 혜원지는 혜원정사 창간주이자 상계총림 방장인 고산 큰스님의 법문과 주지 원허 스님의 글, 사경, 교리특강 등 부처님의 가르침을 충실히 실고 혜원정사 및 산하 단체들의 크고 작은 활동을 실어 신도들이 혜원정사 신도로서 활발히 활동하는 것을 소개했다. 이 중 인기 있는 코너는 바로 원허 스님의 글과 사경이다. 원허 스님은 그달 마다 이슈가 되는 신도들이 관심이 있을 법한 화두를 가지고 고심하여 글을 완성한다. 현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되 불교의 관

다가 IMF 시기인 1999년 12월부터 4개월 동안 신문형태로 되돌아갔다. 어려운 경제 분위기도 있었지만 혜원이 올바르게 발행이 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했고 새로운 형태로 신도들에게 활력을 불어넣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 후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해 소책자, A4 크기의 책자 등 다양한 형태로 제작되다가 최근 16절 사이즈의 모습을 갖추게 됐다. 주지 원허 스님은 "포교지를 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였고 앞으로도 혜원지가 400·500호뿐만 아니라 나아가 하나의 역사로 영원히 남겨질길 바란다. 매월 신도들에게 배달되는 혜원지가 약처럼 귀하고 유용하게 쓰일지 아니면 휴지 조각에 불과한 종이 될지는 신도들에게 달렸다. 하지만 한 명이라도 부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듣고 깨닫는 게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 앞으로도 혜원지를 통해 불자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고 부처님의 길을 같이 걸어가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혜원정사는 300호를 기념한 '추억'을 공모한다. 혜원정사와 함께한 인연담과 사진, 축하 인사 등을 보내면 12월 발행되는 300호에 반영할 예정이다. (010)2572-7164 김나영 객원기자

경남지역 16개 합창단 열띤 경합

제7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부산문화회관서



파라미터 청소년합창제 장면

청소년 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회장 백명숙)가 제7회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를 개최했다. 10월 1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린 이번 합창제에는 부산, 울산, 김해 등 16개의 학교들이 참가해 다채롭고 열띤 경합을 펼쳤다. 백명숙 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장은 대회사에서 "청소년 여러분의 삶에 친구들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행복한 이야기를 써내려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날 합창제에는 대전여자중학교 '옥갓티로리스'가 대상의 영예를 안았고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 '해연합창단', 김해여자중학교 '가오니아 걸즈 싱어즈'가 금상을 각각 수상했다. (사)부산파라미터청소년협회는 1996년 5월 조계종이 설립한 청소년 육성단체 법인으로 올바른 청소년

년 문화 정착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목적으로 매년 '대한민국청소년합창제', 우리 문화체험 및 문화탐방과 문화제 애호활동 등 다양한 참여활동으로 밝고 건전한 청소년 인성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두송복지관 최우수프로그램 선정

'동무야 모여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주관 대회서 호평

늘기쁜마을(이사장 지현) 두송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명자) 병설 두송노인복지센터가 장기요양급여제공 우수사례선정대회에서 '동무야 모여라! 손주들 왔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최우수의 영예를 안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부산지역본부가 주관하는 이번 선정대회는 치매로 홀로 생활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돕기 위한 자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홍보해, 고령화 사회에서 효율적인 어르신 돌봄 방법을 구상하는데 취지가 있다. 두송노인복지

센터의 '동무야 모여라! 손주들 왔다'는 매월 어르신과 지역 어린이들이 함께 하는 시간으로 명절 음식 만들기, 재래시장 놀이 등으로 따뜻한 가족의 정을 나누고 어르신의 옛 추억을 되살려 인지 향상에 효과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편 두송노인복지센터는 주간에는 원예치료, 음악치료, 종이접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김나영 객원기자

난치병 환자 위한 희망콘서트

보리선수약사선원, 11월 8일 벅스코 오디토리움관서

보리선수약사선원(주지 법생)은 11월 8일 오후 4시 벅스코 오디토리움에서 백혈병 어린이와 난치병 환자들을 위한 희망콘서트를 개최한다. 오후 2시 제8차 약사여래불 가

피해법회에 이어 열리는 이번 콘서트에서는 각성 스님의 치유명상을 악과 국민가수 조광조, 전자바이올린 연주자 마리, 가수 박경준이 무대를 꾸밀 예정이다. 행사 모연금은 (사)한국백혈병

소아암협회에게 전달 백혈병 어린이와 난치병 환자들에게 전액 기부된다. 법생 스님은 "결실의 계절인 가을을 맞아 가장 소중한 결실은 사람이 다"며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고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회를 통해 자비법문을 듣는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독려했다. (051)744-7735 하성미기자

佛音으로 학도병 값진 희생 기려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 학도병 추모제 및 음악회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이사장 조연, 회장 법민)가 6·25 전쟁 학도병 희생자를 위한 추모 행사를 10월 11일 부산 강서체육공원 실내체육관에서 봉행했다. '호국안보·국가경제발전·국민화합기원' 라는 주제로 열린 '제1회 한국전쟁 학도병 희생자 추모음악회'에는 제1부 위령대제 및 천도재를, 제2부 라온제나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호국영령들이여!', '사변영가를 위하여' 등 추모곡 공연이 1시간 가량 펼쳐졌다. 제3부에서는 발원문, 추모

시 낭송, 헌화와 헌향, 봉행사 등의 순서로 남북전쟁 시 나라 수호를 위해 희생된 어린 학도병의 영가를 추모하고 나아가 나라의 평안과 화합을 발원하는 법석이 펼쳐졌다.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장 법민 스님은 봉행사에서 "6·25 전쟁으로 조국이 풍전등화에 있을 때 학생의 신분으로 참전하여 적탄을 몸으로 막아낸 학도병이 있었다. 전쟁이 끝난 지 65년이지만 학도병들의 값진 희생을 기억하는 이 조차 없음을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가 그들의 넋을



부산승가연합회는 10월 11일 6.25전쟁 학도병희생자를 위한 추모음악회를 열었다.

위로하고 부처님의 세계로 인도하고 이웃들이 성금 전달, 불자봉정 사자 자 마련했다"며 취지를 밝혔다. 한편 부산시불교승가연합회는 2012년 12월 창립식을 가지고 부산시 불우

김나영 객원기자

"한-스 부처님 인연으로 하나 됐어요"

스리랑카 이주민 위한 법회



(사)함께하는 세상이 주최하는 스리랑카 이주민을 위한 법회 모습.

이주민지원단체 (사)함께하는 세상(이사장 지성)은 10월 11일~12일 스리랑카 이주민들을 위해 특별한 행사를 열었다. 대구 달서구에 위치한 스리랑카 사원에서 열린 이날 법회에는 부산 태종사 도성 스님, 아미사 주지 덕현 스님과 스리랑카 스님 12명, 스리랑카 출신의 근로자들과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특히 이날 행사는 스리랑카의 전통 가사공양 의식인 '카타나 판가 마'가 열려 눈길을 끌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분황사 제18회 원효예술제

분황사 원효학연구원은 제18회 원효예술제를 10월 11일 경내에서 열었다. 신라문화제와 관련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원효 스님의 무애행과 화쟁사상을 널리 퍼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불국사 주지 종우 스님, 최양식 경주시장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원효예술제는 1부 법요식과 2부 예술제의 순으로 진행되어 퓨전국악과 민요, 가수공연 등이 펼쳐졌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분황사가 주최하는 제 18회 원효예술제

경주 분황사는 원효 스님이 주석하며 많은 저술을 남긴 곳으로 매년 원효예술제를 열어 스님을 추모하고 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작은정성이 우리가족과 온 세상을 幸福하게 만듭니다!

어린이에게는 포교를

절어가면 무섭다고 하는 어린아이들 포대화상의 호탕한 웃음과 해학적인 모습에 항상 집에서 마주할 수 있는 기회를 어릴때부터 불교와의 인연을 맺어주며 동전한일 일지라도 보시의 개념을 가르쳐 어려서부터 선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육적 가치와 1700년 역사를 지녀온 우리불교에 미래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부처님의 감사함!

주일마다가는 타종교와는 달리 년내 행사때마다이 마주할 수있던 시간들을 이제는 집에서라도 포대화상님을 보면서 평상시 잊고살았던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연상하면서 동전한일 일지라도 매일매일 감사함을 마음에 담아 부처님께 공양 올립니다.

佛 보시함

해 인사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피로 오늘도 우리 가족은 행복합니다

상표출원등록번호: 40-2014-0042394
규격 : 150mmx350mm

특징
사찰에서 주문시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전후주시면 팜플렛과 포스터를 보내드립니다.

포화대상 이란?
중국스님으로 계차, 명주, 봉화현 사람으로 호는 장경자 또는 포대화상으로 불렸으며 김홍이나 화복, 남재등 미리 말하여 맞지 않는 일이 없었다고. 906년(양정명2년) 3월에 명주 악림사 동쪽 행랑 밑 반석에 단정히 앉아서 "비록전미륵 본신백천여, 시시시시인 시인자불시(彌勒彌勒分身時時時時人時人自不彌)"이라는 계승을 남기고 죽었다. 그때 사람들은 포대화상을 미륵보살의 화현이라 하여 그 모양을 그려서 지금도 존경하며 모든 사람들이 받들어 지고 있다.

제작 : 포교행복 저금통(보시함) 보급회 주소 : 서울 중랑구 신내동 444-8 아 크레빌 주문전화 : (02)494-4890